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중심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의·한의 협진 활성화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13개 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체(43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본 인프라가 확보된 경우 종합병원도 참여 가능하다.

회송수가는 투입노력 및 시간을 감안해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해 입원회송을 4만3010원에서 5만700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외래회송은 현행 4만3010원으로 유지한다.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한 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고, 안면마비와 요통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표준협진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통일간호학회 창립

초대회장 강윤희 … 통일시대 대비 통합 간호체계 연구 주력

통일간호학회가 창립총회를 9월 22일 갖고 출범했으며, 초대회장으로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통일간호학회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한의 보건의료제도 및 간호교육과 간호실무 분야의 격차를 이해하고, 통합된 간호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됐다.

특히 북한주민 및 탈북민의 건강문제, 북한의 보건의료 및 간호현황 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간호학자들의 모임이다.

주요사업으로 통일간호 학술연구, 통일시대 간호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계 최초로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통일간호포럼'과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북한연구학회장)가 북한 내 간호학 및 환자치료의 현실에 대해 특강을 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강윤희 초대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전국 간호대학 축구대회 … 선린대 우승

전국 남자간호대학생들이 축구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화합했다.

'제7회 전국 간호대학 축구대회'가 지난해 우승팀인 군산간호대 주관으로 9월 23일 군산 월명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구대회 본선에는 가천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남부대, 선린대, 예수대, 원광보건대, 충남대, 한중대, 혜전대 등 10개 간호대학 축구동아리 학생들이 참가했다.

경기결과 우승은 선린대, 준우승은 가천대, 공동 3등은 군산간호대와 원광보건대가 차지했다.

각 학교 지도교수 및 여학생들도 함께 참석해 출전한 선수들을 응원하며 제자사랑과 끈끈한 동기애를 과시했다.

축사를 한 문영희 군산간호대 교학처장은 "승리의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상호교류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다져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옥희 전북간호사회 제1부회장은 "앞으로 남자간호사의 비전은 무궁무진하며, 여러분이 간호전문직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에 참여한 남자간호대학생들은 "축구를 통해 남자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축제의 장이었으며,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면서 "보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도록 대회가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간호대학 축구대회는 2011년 처음 시작됐으며, 매년 전년도에 우승한 대학이 주관한다.

내년에는 올해 우승팀인 선린대(경북 포항) 주관으로 축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45조3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현황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시에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었다.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의료인의 전문성 및 법적 책임, 환자의 부담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

이번 고시는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 이내,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 등은 최고 1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등은 3000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상해진단서(3주 미만) 등은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는 1만5000원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이 가능하다.

주혜진 기자 hjjoo@

국가치매연구개발위 발족

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극복의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근본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위원장은 묵인희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국내 치매연구개발의 최고 권위자, 업계대표 및 정부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원인규명 및 예방분과' '혁신형 진단분과' '맞춤형 치료분과' '체감형 돌봄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됐다.

위원회에서는 치매의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에 이르기까지의 전주기적인 세부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10개년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은 단기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개발과 치매 발병을 줄이기 위한 예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 활동은 올해 12월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

전인병원 간호부, 뉴욕 갈바리병원 등 연수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 성미순 간호부장과 고신숙 수간호사가 뉴욕 갈바리병원(Calvary hospital)과 워싱턴 조지타운대를 9월 18~19일 방문했다.

이번 연수는 그동안 통합의료 연구를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통합의료진흥원 후원으로 이뤄졌다.

갈바리병원 마이클 브레샤(Michael Brescia) 병원장이 직접 병원 운영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연수를 통해 통합의료의 정신인 인간 존중의 치료가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체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수팀은 갈바리병원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병동과 각 시설을 둘러봤다. 갈바리병원은 암환자만을 위한 200병상을 운영하며, 뉴욕 전체 말기 암환자의 25%가 치료받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조지타운대에서는 통합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동을 방문했으며, 암환자 재활치료에서의 양·한방 통합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지타운대 간호대학 교수들을 만나 상호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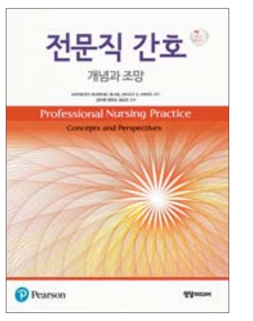
정규숙 기자 kschung@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news.co.kr

전문직 간호 : 개념과 조망

김미영, 양복순, 정승은 공역



변화하는 의료환경과 시대가 전문직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간호지식을 총망라한 책이 나왔다.

'전문직 간호 : 개념과 조망'은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 Concepts and Perspectives' 7판을 번역한 책이다. 김미영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양복순 예수대 간호학부 교수, 정승은 한국교통대 간호학과 교수가 공역했다. 책은 5부 24장으로 구성됐다.

1부 '전문직 간호실무의 토대'에서는 전문직 간호사 역할의 사회화, 전문직 간호의 역사적·윤리적·법적 토대, 간호의 지식개발을 다룬다.

2부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에서는 건강증진자와 간호제공자, 학습자와 교육자, 리더와 관리자, 동료와 협력자, 정치적 옹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거기반 헬스케어, 간호의 질과 안전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3부 '전문직 실무가이드'에서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변화를 관리하고, 기술과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4부 '변화하는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전문직 간호'는 헬스케어 경제학에 초점을 둔 장이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케어, 글로벌 건강, 다양한 문화에서의 간호, 다양한 영적 간호 등을 다룬다.

5부 '미래로'에서는 상급간호교육 및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간호의 전문직 발전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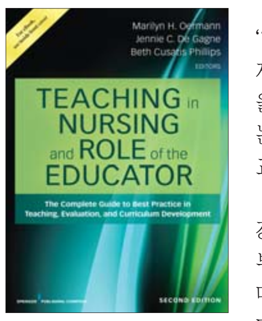
역자들은 서문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터치를 하고, 진실을 전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고, 질병의 의미를 찾도록 돕는 옹호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면서 "이 책은 특히 간호사가 대상자, 대상자 가족, 동료 등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신 연구, 비판적 사고 연습, 생각해보기 등을 제공하며, 간호현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사례와 폭넓은 문헌고찰을 통해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담미디어 / 592쪽 / 2만8000원)

Teaching in Nursing and Role of the Educator

미국 듀크대 Oermann, 장윤정, Phillips 교수 공저



간호교육자의 역할과 교수법을 체계적으로 다룬 'Teaching in Nursing and Role of the Educator' 제2판이 나왔다. Evidence-based teaching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간호교육연맹(NLN)에서 주관하는 간호교육자자격(CNE) 시험을 대비하는 데 유용한 교재이다.

미국 듀크대 간호대학 Marilyn H. Oermann 교수, 장윤정(Jennie De Gagne) 부교수, Beth C. Phillips 부교수가 공동집필했다. Springer 출판사에서 펴냈으며, 2014년 출판된 초판에 4개의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이 책은 간호교육자의 학문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간호교육자로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부터 경력자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수법, 교과과정 개발, 평가와 시험, 간호교육자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제2판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 다학제 교육, 교육과정 모델, 국제간호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간호교육자의 역할, 학습이론, 액티브 러닝, 플립 러닝/팀기반 학습(TBL),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수법,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시뮬레이션 활용 교수법, 임상교육과 평가, 시험문항지 구성, 학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육자 등에 대한 최신 내용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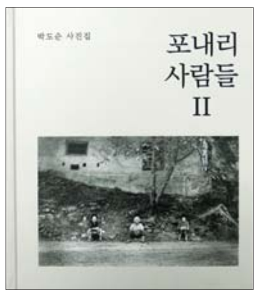
각 장은 학습목표, 연구결과와 근거를 기반으로 통합된 내용, 새로운 교육방법과 전략 사례, 활용 팁, 내용요약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강의교육서, 각 장에 대한 모듈, 학습자 활동, ppt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인 장윤정 듀크대 부교수는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1990년대 미국으로 가 실무를 병행하며 건강심리학 석사학위(MS)와 간호교육학 석사학위(MSN)를 받았다. 노스센트럴대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PhD), 듀크대에서 간호실무 박사학위(DNP)를 취득했다.

2016년 미국간호교육연맹(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이 수여하는 Academy of Nursing Education Fellow(ANEF)에 한국인 최초로 선정됐다. 이어 세계 간호학자들의 최고 영예인 미국간호학술원 정회원(FAAN·Fellow of American Academy of Nursing)으로 선정돼 10월에 열리는 입회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도순 보건진료소장 사진집

'포내리 사람들 II'



"포내리 사람들은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다. 들꽃 같은 삶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도순 상곡보건진료소장(전북 무주군 포내리)의 사진집 '포내리 사람들 II'가 발간됐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인 박도순 소장은 여러 미술대전과 사진전에서 수상했으며, 개인 사진전도 연 작가다. 포내리는 박도순 소장이 태어나 자란 곳이다. 사진으로 담아낸 포내리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는 보건진료소 진료실 안에서, 출장 중 마을 어귀에서, 논두렁에서 그렇게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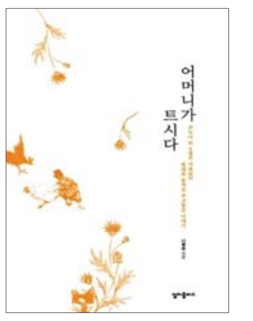
내년에는 농사 짓나 두고 보라면서도 땅을 놀리지 못하는 부지런한 일상과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추억처럼 꿈처럼 담아냈다. 깊게 패인 주름살 위로 파안대소한 어르신들의 초상은 삶의 무게와 고단함을 펼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시리도록 아름답다.

박도순 소장은 "다 늙어빠져 쓰잘떼기 없는 것들 찍어서 뭐하냐고 그라는 겨"라고 하면서도 기꺼이 촬영에 응해준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기껏 1/500초, 1/1000초로 끊어 담은 사진을 포내리의 일상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참나적이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끝까지 생명을 사랑하는 당신들이 계시다는 기록이고 증거이기에 내 안에 까닭 없이 쌓이던 울분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이병렬 시인은 "박도순 작가는 그녀만이 가진 또 다른 눈으로 포내리 사람들의 심중을 정확하게 꿰뚫어 답으며, 사물과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줄 안다"면서 "사랑은 언제나 안에서 밖을 향하여 나아가고, 성숙한 사랑은 앎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됨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서출판 윤진 / 3만원)

치매 앓는 어머니와의 대화 에세이

'어머니가 트시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돼요."(아들)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다만 꾹 참고 있다. 너도 참아내라. 엄마가 이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밥도 정말 잘 먹고 있다."(어머니)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막내아들이 전화로 주고받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 에세이 '어머니가 트시다'가 발간됐다.

축산전문 공무원인 나병승 수의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2년여 기간 동안 주고받은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해 실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걱정, 애타는 마음, 몽글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저자는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간호사인 아내, 형과 형수, 누나 등 10명의 가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소식통 역할을 했다. 가족들이 보내온 답글 내용도 책에 함께 실었다. 디지털 사회의 상징인 휴대폰 문자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아날로그적 가족애를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저자는 "어머니에게 읽을거리를 만들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을 펴내게 됐다"면서 "치매를 앓는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 초기 상태인 어머니에 대해 '치매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 책 제목에 '트시다'란 는 말을 썼다고 한다.

(컴처플러스 / 280쪽 / 1만6000원)